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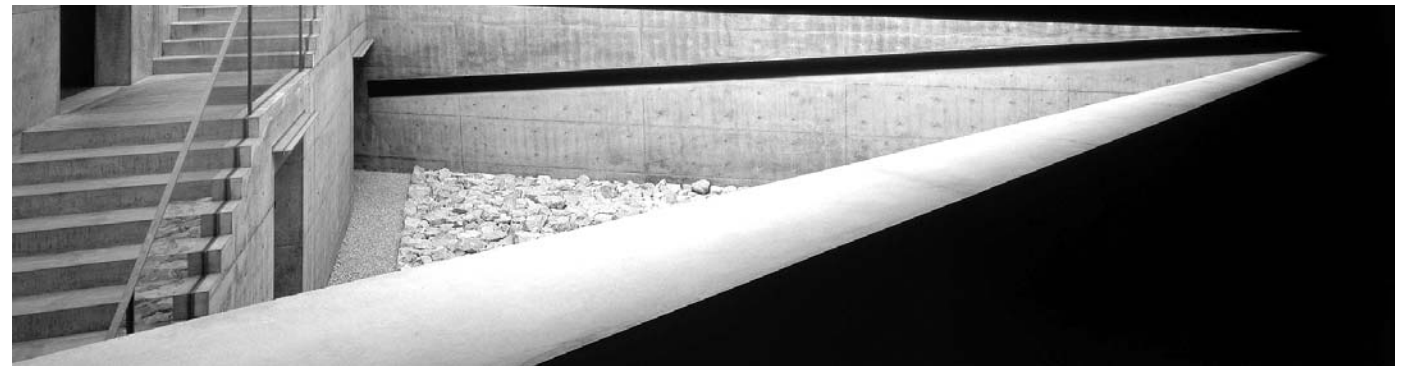
日 나오시마 미술기행을 다녀와서



이 묘숙
송은 갤러리·웨미미술관 관장

일본 '나오시마 미술기행'을 다녀왔다. 광
속을 달려나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
지 진중하고 소박한 생각을 하게했던 행복
하고 알찬 시간이였다.

현대미술의 천국
모네의 거친 붓자국
쿠사마 야요이 '빨간 호박'
'오픈 스카이' 뽕 뚫린 하늘



▲지추미술관 건물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이곳은 우리를 깊은 명상으로 안내한다

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주목받
기 시작한 그녀는 '편집적 강박신경증'이라
는 정신적인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 나가며
자신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들어 왔다.

은 명상으로 안내한다.
2004년 개관한 지추(地中)미술관은 '자연
과 인간의 소통'을 모토로 하는 만큼 자연
속에 지극히 조용하게 속내를 숨기고 있다.

이'는 뽕 뚫린 하늘을 바라보는 자연일체의
예술작품이었다. 전시공간에 푸른 네온으로
신비감이 가득한 '오픈 스페이스'는 깊숙한
벽 가까이 접근이 금지되어있다.

베네세 미술관 안은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
품이 전시장을 뺄곡하게 채우고 있다.
오하라 미술관은 오하라 마고사부루에 의
해 1930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서양미술
중심의 사립미술관이다.



두대의 피아노
그리고 두명의 피아니스트

서영화·박순방 듀오연주회, 29일 제주대

서영화·박순방 피아노 듀오연주회가
오는 29일 오후7시30분 제주대 아리무
즈홀에서 열린다.



〈서영화〉 〈박순방〉

제주피아노학회가 주최한 이번 공연
에서 두 사람은 파렐의 '케논 D', 피아
졸라의 '리베르 탕고', '하바네라' '보헤
미아 춤' 등으로 구성된 비제의 '카르멘'
등을 연주한다.



또 강스텔라, 현은숙씨와 함께 두대의
피아노 연주를 통해 베토벤의 '에그몬
트' 서곡 등을 선사한다.

조선대 음악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인
서씨는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이사, 선
클라비어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며
광주·목포 시향, 일본 동경프라임 심포
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
다.

박순방씨는 현 제주대 음악과 교수로
제주피아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깊어가는 가을 색소폰 매력 속으로

30일 '아라벨라 앙상블'

'가을밤 적시는 색소폰 선율'

지난해 창단공연을 가졌던 아라벨라
앙상블 두번째 정기공연이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지난 2006년부터 취미로 색소폰을 배
웠던 단원들이 화음을 맞추고, 앙상블을
구성하게 된 건 삶의 여유와 활력을
제공해 주는 색소폰의 매력을 제대로 느
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바하의 '미뉴
에트' 등 클래식곡과 SG워너비의 '라라
라',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등 가을밤에
어울리는 가요, 가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그
밖에 플루티스트 최지혜씨가 찬조 출연,
제인의 '베니스의 사육제'를 들려준다.

채면석(광주시립교향악단원)씨가 지
휘를, 선창배(광주시립교향악단)씨가
지도를 맡았다. 단원은 오봉렬·이상욱·
이태영·최소영·최영욱·김영훈·최의권
씨다. http://cafe.daum.net/arabela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병원일까 미술관일까

전남대 치의학 55주년
리일천씨 12월 25일까지
병원 건물 소재로 사진전



사진작가 리일천씨가 오는 12월25일
까지 전남대 치과병원 1층 로비에서 이
병원 건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다.

전남대 치의학 개설 5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에서 리씨는 병원 건물과
정원, 로비 등지를 아름다운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을 선보인다.

조경수와 하늘이 어우러진 작품은 병
원 건물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지웠고,
아기자기한 의자들이 바둑판처럼 놓여
있는 병원 로비는 미술관을 연상시킬 정
도로 아름답게 묘사했다.

리씨는 한국프로사진협회 교육부장
이사와 광주시지회 회장을 역임했고, 5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또 민족사진가협
회 정회원, 한국 노블 포토클럽 원장, 광
주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강사로 활동
중이다.

2년 전부터 지역 미술인 100인을 선
정해 10년 동안 그들의 작품세계와 삶을
사진에 담고 있다.

문의 062-223-8845.

/오광희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작은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빛고을낙지마당', '룩펠러회원권거래소', '작명대가·동양철학원', '남광철물상회', '음시롱감시롱', '(주)e좋은상조호남본부', '장안국밥', '핸디페어', '생생만두한판', '코큰소한식', '선불교(오치포연정)', '밭데리전문할인매장', '무진보', '입석과서석', '장씨복집', '자매맛집', '만리향(구)친안문', '영미오리탕', '해보', '국민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일심사무소', '아우성', '광주밥집', '화필여로', 'SM스포츠클럽', '수연정'.